

### 경북문화관광공사, 나눔 실천 '보훈가족 사라의 쌀 드림' 행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25일 공사는 전날 경주 소재 경북남부보훈지청에서 '보훈가족 사라의 쌀 드림'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내 보훈가족을 위해 10kg 쌀 60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역업체에서 쌀을 구매했으며 전달된 쌀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관계자와 경북남부보훈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달식과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헌신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뜻을 함께 나눴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문화나눔 행사 '팝콘데이', '사랑의 연탄나눔' 등 다양한 환경사회복지배 구조(ESG)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안동=이상호 기자 leesh0412@naver.com



청도군은 한재미나리 재배능 및 관계자 대상으로 '내년도 한재미나리 성공 출하를 위한 미나리 생산 및 친환경재배 교육'을 하고 있다. 청도군

### 청도 한재미나리, 농가 교육 역량 강화·브랜드 경쟁력 ↑

경상북도 청도군이 전국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재미나리의 고품질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농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청도군은 25일 경북근로자연수원 대회의실에서 한재미나리 재배농가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한재미나리 성공 출하를 위한 미나리 생산 및 친환경재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높아진 안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도 한재미나리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 교육에서는 농가가 즉시 영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시설관리 △맛쫄춤 병해충 방제 기술 등 핵심 재배 기술이 집중적으로 다루졌다.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돼 농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청도 사무소의 협조로 △지리적표시제 관리 방안 △친환경 농자재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전문 교육도 함께 진행되며 교육의 완성도를 높였다.

농가들은 이날 교육을 통해 한재미나리의 브랜드 위상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도=이상호 기자 leesh0412@naver.com

# 대구시,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AI 드론 가동

## 내달부터 12월까지 드론 사업 추진... 재난대응 활용 안전·치안 현장 투입... 인명 사고 건수 제로화 목표

대구광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안전·치안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부터 12월까지 '첨단 인공지능(AI) 드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대구시는 이번 사업은 대구경찰청과 협력하고 금호강개발과 두류공원관리소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에 첨단 AI 드론을 투입하는 것으로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와 국가하천 점검, 치안 취약지역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7월부터 8월까지의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 일원에서 아리온, 이스온, 대구경찰청과 함께 스마트 치안 임무

를 수행한다. AI 드론은 영상정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차량 등 객체를 인식하고, 인과 밀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특히 내달 1일부터 개최되는 대구치맥 페스티벌 기간에는 AI 드론을 집중 투입해 100만 명이 찾는 대규모 축제의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9월부터 10월까지는 베이리스와 함께 낙동강·금호강 등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AI 드론 점검을 실시한다.

드론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천시설물의 균열과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토지 점용과 무단 경작 상태 등



대구광역시가 미래형스마트 안전 도시를 구축한다. 대구시가 본격 도입하는 첨단 AI 드론의 주요 임무별 가동 예시 화면. 대구시

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하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하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강창교에서 사문진으로 이어지는 도심 치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스카이엔터

프라이즈, 이스온, 대구경찰청이 협업해 대구시 지원으로 개발 중인 국산 AI 드론 기체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드론은 실종자 수색은 물론 교량 실종·자살 사고 위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되며, 연간 100건 이상 발생하는 인명 사고 건수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외관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첨단 AI 기술의 도입으로 드론 산업은 이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입증된 지역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구가 미래항공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허성호 기자 call0606@naver.com

## 경북도, 산업AI 실증 확산... 이차전지 '자율제조' 시동

### 에코프로비엠 등 5개 사 참여... 현장 핵심 과제 해결 실증 안전관리·물류 무인화·로봇관제 시스템 등 제조현장 적용

경상북도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I) 속도를 높이며 제조업 구조 혁신에 본격 나서고 있다.

25일 도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산업AI 솔루션 실증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제조현장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

한 공정 자동화 및 안전관리 솔루션을 실증했다.

이번 사업에는 에코프로비엠·아이에스·에코솔루션·엔플러스·아비코·코엔티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공정 간 물류 효율 개선, 다중 로봇 운영

최적화 등 현장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실증을 진행했다.

특히 AI 영상분석 기반 위험 감지 및 화재 예방, 공정 물류 무인화, 자율이동로봇 최적 운영, 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등 이른바 물리AI기술이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되며 자율제조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

물리AI는 카메라·센서로봇 등 물리 시스템과 AI가 결합해 제조현장을 실시간으로 인식·판단·제어하는 차세대 자율제

조 기술이다.

경북도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이차전지 산업은 물론 자동차부품, 반도체, 철강 등 지역 주력 제조업 전반으로 AI 기반 제조혁신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공정물류 무인화,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제조기업에 보급하고 공급·수요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후속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제조업 AI 생

태계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경주에서 '제조현장 물리AI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하고 실증 사례 공유와 전문가 강연, 자율제조 전략 토론회를 진행했다.

양규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AI는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검증된 물리AI 기반 제조혁신 모델을 지역 제조기업에 확산해 제조업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제조업 AI 전환과 자율제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이상호 기자 leesh0412@naver.com

## 경북 '전기산업 엑스포' 개막... 미래 견인할 신기술 '한자리'

### 탄소중립·시시대 혁신비전 공유 국내외 130곳 참여 400부스 운영

경상북도는 24일 대구 엑스코(EXSCO) 서관에서 '2026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 개막식을 열고 전기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이날 개막식에 양규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김위상·우재준 국회의원, 자담바 주부산 몽골 영사, 귀경카이 주한국대사관이 대표부 부산사무처 총영사 등 국내외 전기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엑스코와 전기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엑스포는 지자체 주최 전기·전력 분야 유일 전문 전시회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기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 경쟁



경상북도가 24일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2026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 개막식을 개최했다. 경북도

력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담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전시회에는 발전·송배전·변전 기자재, 전기플랜트, 전기안전, 에너지 신산업, 원자력 산업 분야 등 국내외 130개 기업이 참여해 총 400개 부스를 운영하며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경상북도 원자력 르네상스 △신재생에너지 △기재 △시공·안전 등 4대 특화 파빌리온으로 구성된 산업별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10개국 19개 바이어가 참여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 발전사·대기업·공공기관 등 30여 개 발주처가 참여하는 구매상담회도 함께 열려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엑스포 기간에는 '햇빛소득마을 및 영농형 태양광 설명회' '미래 배전 신기술 및 핵심 기자재 기술 교류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대응 세미나' 등 전기·전력 산업 현안과 실무 중심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대구=이상호 기자 leesh0412@naver.com

## 대구시 "마을기업서 일경험 하세요"

### 청년 138명 모집... 5개월간 사회연대경제 기업 근무

대구광역시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138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1억 38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10억 6900만 원이 투입된다. 모집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신청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7월부터 5개월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며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단순 보조 업무에 그치지 않고 햇빛소득마을, 통합돌봄, 먹거리문화관광 등 국가 및 지방정부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된

분야에 우선 배치돼 실전 직무 역량을 쌓게 된다.

참여 청년에게는 월 최대 234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직무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또 청년메니저를 별도로 배치해 초기 적응부터 진로 설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에도 운영비(월 20만 원)와 멘토 수당(월 15만 원),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를 통해 선호기업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허성호 기자 call0606@naver.com



## 대구마스터즈육상대회, 106개국 1만1000여 명 신청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3일 선수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 세계 106개국에서 선수와 동반인 등 총 1만1014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의 참가자 유지 목표를 90개국 1만1000여 명(선수 7000명, 동반인 4000명)으로 설정했으며 최종 등록 결과 목표를 웃도는 참가 규모를 기록했다. 등록 현황은 선수 7409명, 동반인 3605명 등 총 1만1014명이며 종목 참가 건수는 1만2277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선수는 3791

명, 해외 선수는 3618명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25개국 5109명이 참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럽 36개국 1178명, 북미 16개국 576명, 오세아니아 6개국 258명, 아프리카 13개국 156명, 남미 10개국 132명이 등록했다. 해외 참가국 중에서는 일본이 4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5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가 신청했으며 80세 이상 참가자가 225명에 달하는 가운데 100세 이상 참가자도 1명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목 참가 건수 1만2277건 가운데 10km

로드레이스(1958건)와 하프마라톤(1853건)이 가장 많은 참가 신청을 기록했다. 이어 100m(938건), 200m(795건), 포환던지기(380건), 원반던지기(368건), 창던지기(355건) 등 트랙·필드·로드레이스 전 종목에 걸쳐 참가가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기훈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전 세계 마스터즈 육상인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허성호 기자 call0606@naver.com



대구광역시가 내달 6일까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138명을 모집한다. 대구광역시